

# “골드바·현금 5000만원 쏜다”...증권사 RIA 유치 경쟁

〈국내시장 복귀계좌〉

## 세제혜택·수수료 우대에 경품 이벤트 유턴하는 개인투자 고객 확보 총력전

증권사들이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하면서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에 나서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이벤트를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RIA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해 장기 투자로 연결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50~10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

나 국외편드를 거래할 경우 공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어 통합적인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RIA 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매도 후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도 90% 우대한다.

또한 선착순 1만명에게 개설 지원금 1만 원을 지급하고, 납입 한도를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타사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매수



한국투자증권 KO-RIA 계좌 이벤트

한 해외주식을 한국투자증권 RIA로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RIA 계좌 혜택

삼성증권도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 고객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수·매도 수수료 및 한

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수수료 혜택은 이벤트 종료 후에는 모두 표준 수수료로 부과된다.

미래에셋증권은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 5월 31일까지 100만원 이상을 입고하면 선착순 3만명과 이후 입고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국내주식투자지원금 1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 1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2026 명에게 대형TV와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5월 말까지 RIA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1000만원어치의 골드코인, 현금 5000만원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도 RIA 비대면 계좌개설 시 연말까지 해외주식 매도 수수료 우대 및 환율 우대(95%), 국내 주식 매매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선착순 5만 명에게는 RIA를 신규 개설하고, 거래 시 최대 1만원의 금융투자 상품권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도 7월 31일까지 RIA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입고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iM증권은 5월 31일까지 미국 주식을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금액별 선착순 사은품을 지급한다.

매도 금액은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iM증권 생애 첫 거래 고객은 매도 금액을 2배로 인정한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본부 대강당에서 조합장 및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전남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했다.

## 농협 전남본부, 2025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 종합업적·상호금융 등 45개 농축협 수상

농협 전남본부는 23일 본부 대강당에서 조합장 및 임직원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전남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종합업적평가와 상호금융대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축협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종합업적평가 우수 농축협 21개소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축협 24개소 등 총 45개 농축협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하나 돼 탁

월한 성과를 이뤄낸 수상 농축협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중동 경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가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경영관리로 견디는 결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종합업적평가 및 상호금융대상에서 △종합업적 15개소 △상호금융 8개소가 최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되며 전남 농축협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반대매매 주의보...“증권사 할인을 확인해야”

### 금감원, 분쟁사례·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장 마감 후 담보비율·미수금 점검 등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락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거래 약관에 기재된 할인을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증권사에서는 담보부족금액이 약 201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3090만원으로 산정돼 약 15배 큰 규모가 매도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증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모두 매도됐기 때문이다.

또 반대매매는 실행에 앞서 우선,

SMS, 알람톡 등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사전 안내하는데 신청인이 안내번호를 차단해 수신하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담보 비율은 종종 변동하는 만큼 장 마감 이후 확정된 수치를 확인해야 하며,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할 절차로, 반대매매 직후 추가 상승은 사후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신용융자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대상 종목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사에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

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 계좌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해외주식의 담보 가치가 낮아 담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시, 청년구직활동수당 3차 참여자 모집

731명 추가 선발...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 중인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1·2차 모집을 통해 총 769명의 청년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731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함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원활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취·창업준비형 △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진로 설정과 구직 계획 수립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다. 재학생·유학생·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플랫폼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을 이수하고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고용 한파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을 이수하고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9100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50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남광주농협은 23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원로조합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문체부-콘진원,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맞손'

### 3개 분야 42개 과제 선정...발굴·도약까지 사업화 자금·성장 프로그램·투자 유치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 유망 기업의 발굴부터 도약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2026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개 분야에서 총 42개 과제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6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은 창업 기회자(액셀러레이터) 2개소와 창업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18개사를 선정해 운영한다.

기업당 최대 9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 기획자의 전문 역

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연계, 전문 상담, 네트워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 창업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창업 경진 대회 '도전! K-스타트업' 콘텐츠 리그와 연계해 우수 기업의 본선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2026 투자 연계 창업도약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4년 1월 이후 단일 투자 4억원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최대 1억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투자 유치 실적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자 인정 기간 확대와 후속 투자 기회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네이티브클라우드, 롯데월드, 삼성물산, 에코계업즈코리아, 젠지, 현대건설 등 주요 선도기업과 협력해 운영한다.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 콘텐츠 기업 12개사를 선정해 최대 68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공동 사업 수행 기회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선도기업과 신규 서비스 개발, 콘텐츠 공동 기획, 기술 검증, 사업화 연계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 설명회'는 오는 27일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니추=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촬영 남광주농협 원로조합원 참여

남광주농협은 23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원로조합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복가득 장수사진' 무료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여성 조직인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에 온기를 더했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원로조합원들이 편안히 분위기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의상 준비를 지원했으며,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떡과 다과를 마련해 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세심하게 챙겼다.

이영중 조합장은 "원로조합원들의 가장 아픈담고 건강한 모습을 장수사진으로 남겨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